전법 일기

봄 오면 씨앗 뿌리듯 천진불의 불심 싹튼다

나의 입산출가일은 2011년 9월 2일이다. 다른 스님들도 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제법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날은 나의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일이기 때문이다.

군 생활을 시작하는 훈련소 5주 동안 나는 주말에 열리는 불교 종교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마지막 5주차 때는 삼귀오계를 수지하고 불자가 되었다. 광평(廣坪)이라는 법명도 받았다. 동기들이 햄버거와 여고생 찬양단에 흔들려 교회나 성당으로 흩어져 갈 때도 나는 꿋꿋이 불교 종교행사에 출석해서 간식으로 나온 백설기를 꼭꼭 씹었다. 주변에서는 내가 모태 불교신앙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수계식 날 두 눈을 조금도 깜빡이지 않고 연비(燃臂)를 받는 내 모습을 보고, 입대 전에 혹시 어느 절에 계셨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저 말 없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왜냐하면 다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그저 2년에 한 번 사단급에서 뽑는 불교 군종병이 되어 군 생활을 조금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고백하자면 생애 첫 수계식에서 나는 영 불량한 불자였고, 삼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오계는 지킬 생각이 없었다. 군대에서 만난 불교의 덕을 좀 볼 생각으로 신실한 불자를 연기하는 내 모습을 부처님께서 보셨다면 아마 실소를 금치 못하셨을 거다. '요놈 네가 똑똑한 줄 알지. 어디 한번 두고 봐라' 하셨던 걸까. "어어" 하는 사이에 나는 그 뒤로 꽤 많은 수계식을 치르게 되었다. 출가해 사미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고, 비구계를 받고 어느새 수계식을 진행하는 처지가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매년 하반기 부산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불교행사인 팔관회 때의 일이다. 범어사 포교국장 소임을 보고 있던 나는 '선재동자 수계법회'의 교수아사리로 등단하게 되었다. 팔관회 3일 행사 중 첫 공식행사였기 때문에 나도 아이들도 많이 긴장했다.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으로 활동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야외수계법회였는데, 어린아이들 특성상 최대한 연습을 집중해 짧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다년간의 어린이법회 지도를 통해서 숙지하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고 예행연습을 위해 아이들을 무대 위로 올렸다. '여러분의 연습 태도에 따라 앞에 있는 스님은 좋은 스님이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스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입으로 떠들면서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집중한 얼굴도 있고, 산만한 얼굴도 있었다. 또랑또랑한 눈망울도 있었고, 졸린 눈빛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얼굴이 십수 년 전 처음 수계를 받을 때의 내 얼굴과 같았다. 씨앗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서리와 눈바람으로 묻어 봄에 다시 싹이 움트는 그런 인연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아주 오랜 세월 아이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기다려온 사람이 된 것처럼. 부처님도 활짝 웃고 계신 날이었다.



범어사 전 포교국장 눌은 스님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④ 소동파의 오도송

온 세상이 곧 부처의 세계이니…

계곡 물소리가 부처의 설법

계곡의 폭포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무진장 설법인데(溪聲便是廣長舌)
어찌 산천의 아름다운 경치가 청정한 부처의 몸이 아니랴(山色豈非淸淨身)
밤새도록 쏟아진 팔만사천 미묘한 무정(無情) 법문을(夜來八萬四千偈)
다른 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이치를 설명해 보일 수 있을까(他日如何擧似人)

이 오도송은 소동파(蘇東坡, 1036~1101)가 중국 선종의 오가칠종인 임제종 황룡파의 개조 황룡 혜남(黃龍慧南)의 선법을 이은 상총(常總)선사로부터 인가(認可)를 받은 선시이다. 소동파는 중국 송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며 서예가이며 문장가이고, 아버지 소순과 동생 소철과 함께 당송팔대가에 들어가는 천재이다. 당시(唐詩)가 시의 기교면에서 극치에 달했다면, 송시(宋詩)는 시의 내용을 중시했다. 따라서 소동파의 시는 내용이 선불교의 깊은 깨달음이 담긴 철리시(哲理詩)를 많이 읊은 것이 특징이다.

소동파는 22세에 일찍이 과거 급제했으나 당시 왕안석의 신법(급진적 부국강병책)을 반대해 평생을 지방 오지의 외직과 유배생활을 한 고달픈 삶을 살았다. 그의 유일한 삶은 자연에서 시와 서예 그리고 그림을 그리며 유유자락하는 일과 산사의 고승과 벗하며 불경을 공부했다.

무정설법 화두 받은 소동파
여산 폭포소리 듣고 깨달아
자연 그대로가 법신불 자체

소동파는 1086년 천하 명산 여산 동림사에서 상총선사와 밤을 새워 불립문자의 선학(禪學)에 대해 토론했다. 상총선사가 "그대는 어찌해 무정설법(無情說法)은 듣지 않고 유정설법(有情說法)만 들으려 하는가"라고 묻자, 그는 아무 말을 못하고 무정설법이 화두가 됐다.

아침이 돼 동림사를 나선 소동파는 여산 호계(虎溪)의 폭포소리를 듣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읊은 게송을 상총선사에게 올리게 된다.

유정설법은 생명체가 있는 유정(有情, 감정이 있는 동물) 즉, 중생을 위해 법사나 부처가 설한 팔만대장경을 뜻하고, 무정설법은 아무런 감정과 의식이 없는 산천 목석 즉, 자연이 설법하는 것을 뜻한다.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무정물이 설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아는 경지가 불립문자를 종지로 삼는 선의 세계이다.

이 시는 먼저 경치를 묘사하고 나중에 일(주제)을 묘사하는 선경후사(先景後事)의 한시의 전형적인 창작 기법에 따라 전반부에서는 "계곡의 물소리와 산의 경치"를 통해 부처의 모습과 설법을 비유했고, 후반부에서는 "자신이 깨달은 자연 산천의 무정물이 설법하는 무궁무진한 팔만사천 무정설법을 훗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언어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선의 오도(悟道) 경지를 멋지게 갈파하고 있다. 선가의 언어는 언어도단(言語道斷)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이렇게 그들만의 언어로 표현한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보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고정된 실체가 없이 서로 인연에 따라 의지해서 사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상체는 무아(無我) 즉, 공(空)의 세계이다.

〈화엄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온 세상이 부처의 세계이고 정토인 사사무애법계이다. 청정한 자연 그대로가 진리의 부처인 법신불(法身)인 비로자나불이다. 선사들은 깨닫고 보면 세상 만물이 나와 같을 뿐이고 오직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동국대 공짜로 다니려 출가했냐니

"너 동국대 공짜로 다니려고 출가한 거 아냐?"

설령 아무리 막역한 친구 사이일지라도 상대방에게 큰 실례라서 좀처럼 입 밖으로 내뱉을 순 없을 이 말. 놀랍게도 조계종 사미·사미니계 수계산림에 입교한 젊은 출가자가 선배스님격인 어느 습의사에게 들은 말이라고 한다. 출가자 급감으로 인해 많은 사찰이 주지도 없이 비어가는 현 시대에 가당키나 한 말인가. 후배의 발심을 마치 '위장 출가'로 보기라도 한 걸까.

조계종이 '청소년출가'를 특별법으로 다뤄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만 19세 미만 소년출가자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이하 청년출가자의 경우 사미·사미니계 수지 후 종립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과 수업료 전액을 종단이 지원한다. 그만큼 종단에는 젊은 출가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습의사의 저 말 한마디는 종단의 시대적 과제인 출가 장려를 걷어차는 것과 다름없다. 동국대 불교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면 출가할 마음이 생길 것 같은지 전국의 고등학생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다.

조계종 교육원이 2018~2022년 사미·사미니계를 받은 출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1%가 행자생활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었다. 여기에 세부적인 항목은 없었지만 절집 내에 잔재하는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내가 선배니까 후배를 막 대해도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을 습의사의 발언도 별다를 게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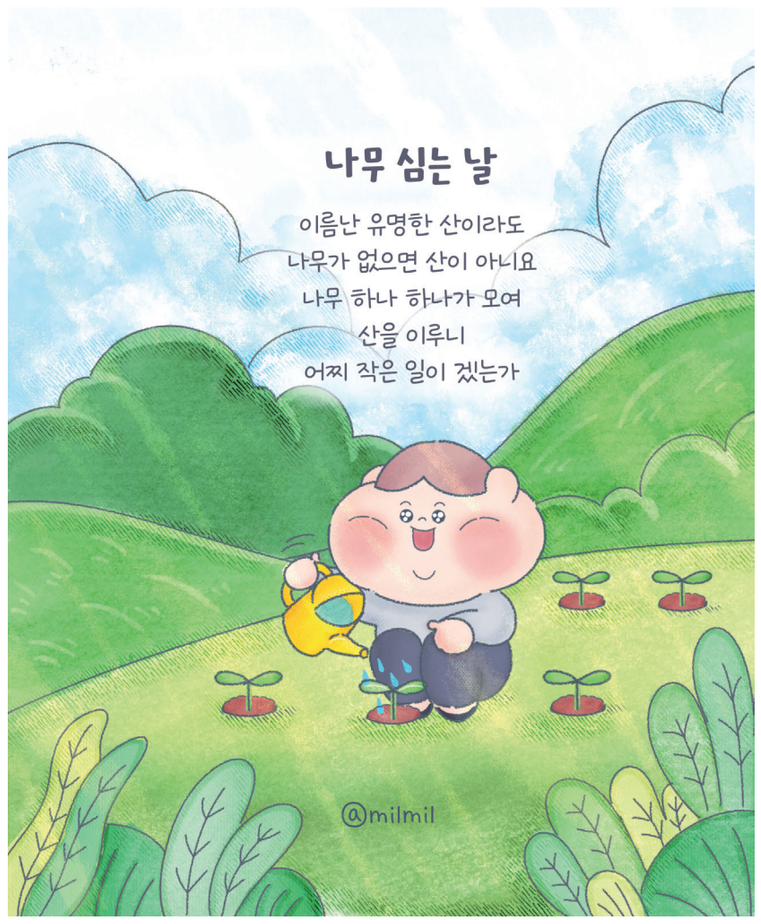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나 대선후보 시절에 한 말과 행동이 대통령 당선 이후 정반대여서 등장한 풍자의 표현 '박적박(박근혜의 적은 박근혜)'이 떠오른다.

종단은 출가 장려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데 정작 출가자가 후배들을 저렇게 생각한다면 이야말로 '출적출(출가자의 적은 출가자)' 아니겠는가.



윤호섭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전재산 다 팔았지만 아들 혈액암치료비 막막

몽골 아나르군, 림프종혈액암에 장기치료 불가피
미납된 병원비만 6천만원…후원받기도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